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학교 → 구이안덕마을 주차장 → 안덕마을 강당 체험 → 학교 → 급식 → 귀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추석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조기토론한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조금 기다리다보니 우리반 버스가 바로 도착했다. 나는 전욱이와 함께 버스에 앉았다 나는 전욱이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잠깐 게임도 하다보니 버스가 멈추었다. 창문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식 주택들이 많이 보였고, 버스 입구 옆에는 흰색 천막이 보였다. 우리반은 흰색 천막에서 안덕마을 사무장님을 따라 올라갔다. 올라가다보니 한옥 펜션과 찜질방 그리고 한약 냄새가 나는 한의원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 건물들을 지나서 안덕마을의 강당으로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다 강당에 들어가니 책상이 4열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에 맞추어 의자들도 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우리반은 자동적으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로 나누어 앉았다. 우리반이 모두 앉자 우릴 강당까지 인도해주신 사무장님께서 강단으로 올라가셔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다. 대부분 안덕마을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용중 안덕마을이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마을중에 10개 안에 든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반은 야외에서 손수건 염색하기를 해야 했으나 강당이 충분히 넓은데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새로운 선생님 한분이 나오셔서 손수건을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손수건을 접고 나무젓가락을 고정하며 우리가 염색할때 사용하는 것은 풀인 '쪽'에서 나온것이라고 들었고, 그 밖에도 해바라기, 당근들을 이용하여 200여가지 이상의 색을 구현할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들은 강당 뒤쪽으로 이동하여 쪽 염색약이 들어있는 그릇에 손수건을 넣고 2분30초동안 주물러주었다. 2분30초 후 고무줄과 나무젓가락을 잘라내고 손수건을 꽉 짜고 폈더니 예쁜 모양이 나타났다. 선생님께서 꺼낸후 초록색이었던 손수건은 산화환원반응으로 점점 파랑색으로 변한다고 하셨다. 선생님 말씀대로 손수건을 잠깐 들고있었더니 점점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신기하였다. 파랑색으로 바뀌자 손수건을 비닐에 넣고 집까지 가져가라고 주셨다. 그리고 선생님께선 세탁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셨다 염색된 손수건의 색에는 알칼리 성분이 있어서 비누로 세탁하지 말고, 중성세제, 즉 주방에서 사용하는 퐁퐁등으로 세탁하라고 하셨다. 손수건 염색하기 체험이 끝나고 바로 떡 만들기 체험이 시작되었다. 손수건 염색하기가 끝나자마자 할머니 두분께서 저탁같이 생긴 곳에 찐 찹쌀을 올려 떡망치 2개와 함께 가지고 오셨다. 남자부터 망치로 떡을 쳤다 특히 재상이와 전욱이가 겉모습에 걸맞게 아주 잘했다. 이어서 선규도 자극을 받고 '형이 보여줄게!'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나가서 떡망치를 잡았으나 솔직히 여자애들 보다 못한 것 같다. 남자가 너무 세게 쳐서 여자로 가기 전에 거의 다 완성되려고 하자 옆의 선생님께서는 여자는 5번씩만 하라고 하셨다. 이어서 떡이 완성되자 할머니께서 떡을 잘라 우리에게 주시고 콩가루를 뿌려주셨다. 우리는 콩가루를 열심히 묻히고 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랐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먹다가 선생님께서 집에 싸 가져가라고 통을 주시자 친구들은 먹다가 갑자기 자신의 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웃겼다. 떡을 다 만든 후에 책상을 모두 정리하고 난 뒤 무리도 더 하고 학교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학교로 출발한다 하셔서 살짝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손수건이 든 비닐과 인절미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우리의 버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규완이가 갑자기 계곡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벗을까 말까 고민하길래 뭐하나 싶었더니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져서 물에 빠져야 된다고 하였다. 나는 규완이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고 '설마 물에 들어가겠어?' 하는 마음으로 버스로 바로 돌아왔으나 나중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로 들어갔다고 해서 놀라웠다. 우리반은 2시간정도의 짧은 진로체험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였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급식 영양사 선생님의 요청으로 재민이와 함께 급식을 먹고 집으로 복귀하였다. 어떤분이 학사일정을 계획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석후유증을 생각해서 이 날에 진로 체험을 가게 만들어서 휴식의 시간이 된서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뜻깊은 체험이었던건 같다. 다음에도 이런기회가 주어지면 안덕마을의 다른 체험들을 해보고 싶다.

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구이 안덕마을.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체험학습 장소가 마음에 안들었었다. 처음엔 어딘지 몰랐다 출발할때 지루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갔다
다도착했을때, 가족끼리 전에 와본곳이 였다. 비도오고 졸렸는데 낯선 곳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비가와서 밖에서 체험을 못하고 안덕마을 강당에 갔다. 강당이 좀 위쪽에 있어서 올라가는데 사우나랑 한의원도 봤다.
전에 가족끼리 왔을때는 자고가지않았는데 나중엔 사우나도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전에 왔을 땐 주말이라 차가 밀렸었는데
평일 오전이라 관리하는 분 밖에 안계셨다. 강당에 도착했는데 안덕마을의 여러 시스템에 대해 들었다. 거기서 신기한 점이
있었는데, 회사 같은 곳은 맨 위에가 회장이나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덕암마을은 맨 밑에가 총괄하시는 분이고 맨위가
원래는 밑에 있어야 할 팀장들이였다. 더 신기한 점은 팀장들이 원래 마을 주민이라는 것이 였다. 우리를 위해 하루전에 급
하게 광고 영상도 만들었다고 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오리엔테이션 하신분은 들어가시고 한복입은 분이나오셔
서 천에다가 천연염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나오셔서 천연염색이 뭐하는 건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만드는
지도 알려주셨다. 우리가 염색할 재료로 쓸풀은 '쪽'이라는 풀인데 파란색으로 염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쪽 말고도 해바라기,
장미 같은 꽃으로도 염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종류가 200가지 이상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염색할 쪽 이라는
풀은 모든 나라에서 난다고도 하셨다. 그리고 천을 물들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천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나무젓가락으
로 고정하고 고무줄로 묶은 뒤에 염색물에 3분동안 담궈 놓으면 된다고 하였다. 천이랑 나무젓가락이랑 고무줄이랑 염색할때
손에 묻으면 안되니까 비닐장갑도 두개씩 받았다. 하는 법을 어려워 하는 애들이 있어서. 설명을 잘들은 태신이가 모르
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해주셨던 선생님이 특별히 태신이가 친구들한테 잘 알려주니까 염색을 다 했을 때 모양이
멋지게 나오는 법을 알려 주셨는데 내가 태신이 옆에 앉아 있어서 나도 듣고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다. 그다음 염색을 하러
갔는데 염색물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냄새가 엄청 심해서 입으로 숨을 계속 쉬었다. 3분동안 색이 잘 베어들수 있도
록 비닐장갑을 끼고 계속 주무르기만 했다. 다주무르고 빼니까 염색하는 물은 파란색인데 천을 빼보니까 초록색이 나왔다.
고무줄이랑 나무젓가락을 다 빼고 천을 편뒤에 털었는데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바꼈다. 그 선생님이 태신이한테 알려준대
로 했더니 다른애들과 무늬가 다르게 나왔다. 몇번 더 털고 비닐봉지에 넣었다. 사진도 찍었다. 다끝나고 자리에 앉았는데
염색이된 천을 집에서 말리고 절대 알칼리 성분을 띄는 것으로 빨지 말라고 했다 알칼리 성분을 띄는 물체는 비누, 세제 같은게
있다. 빨꺼면 중성세제나 퐁퐁으로 빨으라고 했다. 천연염색이 다끝나고 인절미를 만든다고 했다. 앞에 앉은 사람부터
엄청큰 망치로 떡을 내려 쳤다. 덩치가 큰 애들이 힘이 쎄서 떡이 잘쳐졌다. 여학생까지 다 끝나고 몇덩이로 나눠서
콩가루를 묻히고 먹었다 난 손바닥 만한걸 먹었는데 한번에 많이 먹었는데 속이 안좋아서 동생이 인절미를 좋아해서
플라스틱 통에 잔뜩 담아 갔다. 3학년이 없으면 급식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고해서 버스타고 다시
학교로 갔다. 학교가는 버스를타기전에 버스타러 내려오는길에 강같은 곳에서 가위바위보를해서 강물에 발담그자고 했는데
하자고 한내가 걸려서 한쪽 발이 다 젖었다. 버스 내린곳에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탔는데 가는동안 너무 졸려서 잤다. 학교에
와서 얼른 급식을 먹고 집에 갔다. 엄마가 염색 잘했다고도 하고 동생이 하나도 안남기고 인절미를 다 먹었다. 재밌었다.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JB 전북은행본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3-8은 진로 직업 체험활동을 위해 금융과 관련있는 장소 중 하나인 은행에 갔다. 은행에서는 은행이 하는 일, 은행의 운영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어제 은행은 감사 때문에 보안이 철저했고, 그로 인해 은행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할 수 없었다. 체험활동이니만큼 은행원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웠다. 우리는 곧바로 19층에 있는 교육 받을 장소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강사님이 우리에게 전북은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셨다. 난 은행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이 인상깊었다.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은행에 관련된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 첫 게임으로는 주먹쌓기 게임을 하면서 몸풀기를 했다. 게임을 하면서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조이름을 정해 조별 간 경쟁을 하며 게임을 했다. 평소에 좋아하는 빙고 게임을 돈과 관련지어 해서 흥미로웠다. 안 나올 것 같은 단어는 수정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나와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빙고가 끝난 후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졌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은행 주위의 건물들을 구경했다. 쉬는 시간에 끝나고 한 게임은 '투자 게임'이었다. 투자의 종류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있으며 대부분 안전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험이 상부상조의 원리로 운영되며 미래의 위험 대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게임의 결과로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그 이유는 비싼 보험만 잔뜩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난 '비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게임으로 풍선띄우기 게임을 했다. 파란색, 빨간색 풍선을 각각 원금, 이자로 정해놓고 조원들 간의 패스를 하며 풍선을 띄웠다.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니 더 재밌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체험이라고 느꼈다.

은행은 저축, 대출, 송금 등의 역할을 하며 자동화기기, 고객, 은행원 등으로 이뤄져있음을 알게 됐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금융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어 보람차고 뜻 깊었다. 이런 활동은 미래에 직업을 가졌을 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해주었다. 미래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활동이였다. 방송 PD가 꿈인 나는 만약 다음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한다면 방송국에 가서 PD님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청소년 경찰학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그날은 경찰학교로 체험학습을 갔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날도 추웠는데 아이들은 모두 방긋방긋 웃었다. 경찰학교 가는것이 다른 진로직업 체험보다 더 나을 거라는 아이들의 판단이 있었다. 우리반을 다 수용하기에 충분해 보이기도, 조금 좁은감이 있어보이기도 한 곳에 의자에 앉아 우리들에 지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와상문"이라고 했다. 내 지문은 세상에 흔하다는 말도 들었다. 보통 민증을 만들때 지문까지 찍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지문이 대한민국의 정보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렇담 지금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 지문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나를 잡지 못한다는 소리인가 싶었다. 그다음으로 체험해본건 경찰복 입어보기, 사격하기, 경찰들이 실제 사용하는 수갑과 같은 물품을 사용해보기도 했는데 실제 수갑으로 내 손목을 채워보니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두려움실한 기분이 었다. 사격도 해봤는데 어렸을 적 동생의 비비탄총으로 몇번 쏴본 경험이 있어서그런가 다들 조들갑을 떨며 총소리가 무섭다 했는데 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무념무상 상태였다. 확인해보니 과녁에 거의 중앙 가까이 비비탄 총알이 지나간 자리가 있었다.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마치 요원이 된 기분이었다. 사실 잘 보이지 않아 감으로 대충 대충 쐈는데 결과가 좋아서 놀라웠다. 경찰복도 입어봤는데 마침 내몸과 비슷한 사이즈가 있었다. 옷매시도 예쁘고 사실 성적만 된다면 경찰을 해보고도 싶은데 경찰은 공부는 물론 체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포기했다. 시험기간에 너무 늦게 자서 체력이 저질 체력이 된 나는 터무니 없는 소리였다. 문득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졌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찰복 입어보기 체험을 모두 마쳤다. 그 다음으로는 흥미 없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 정말 흥미없었지만 요즘 학교에 전담경찰관이 한명씩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를 받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적이 있었던것 같다. 그러려니하고 예방교육을 받았다. 친구의 손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번 만진후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 아이를 찾는게임, 앞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잘 기억해서 달라진 모습을 찾는 게임을 했다. 같은반이었어도 사실 별로 안친한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할때는 서로 별로 낯을 가리지 않았다. "이건 게임이니까"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는데 뭔가 벽이 허물어지고 그 시간만큼은 안친한 애하고도 재밌게 게임했고 반 여자애들끼리 더 친해진 기분이 들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긴 싫지만 애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추억 만드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얻은것 같고 즐거웠다.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뒷면계속

미니 사이즈로 경찰학교 훈장을 받고 일정은 끝났지만 그 훈장을 볼때면 재미있었던 그때가 두고두고 생각날것 같아서. 내 방 안에 잘 보이는 선반위에 훈장을 두었다. 경찰학교여 안녕....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국립 전주 박물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어제 국립 전주 박물관에 다녀왔다. 처음에 그 곳에서 '큐레이터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와 관련이 없고 쓸데없는 체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체험을 다 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전시실 구경을 하면서 유물 작성표와 기록표를 썼는데 평소에 보기만하고 스쳐지나간 유물들에 관해서 다양하고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나는 금동신발에 대해서 썼는데 이 신발은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고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산소나 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먼저, 내 적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 적성에 따른 큐레이터 분야?를 알아보았다. 나는 예술형이 나와서 공연이나 전시의 기획을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가장 적합하다. 큐레이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는데, 어제 이후로 관심이 많이 생겼다. 만약에 내가 큐레이터가 된다면, 나는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선생님들 처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담당할 것 같기도 하다.

교육을 받다가 보존 과학실에 내려가서, 실제로 유물이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직접 보았다. 보존 과학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별로였는데 그게 다 유물을 보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약품 냄새였다. 어제는 운이 좋아서 엄청 좋은 유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좋은 유물들을 우리가 더 좋게 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했다.

다시 돌아와서는 토기를 접합하는 체험을 했다. 처음에, 토기의 부서진 부분을 이어서 번호를 쓰고, 종이테이프로 임시 고정을 했다. 다음에는 종이테이프를 다 떼고 본드를 붙여 고정했는데 이 본드는 접착력이 약해서, 본드를 다 붙인 후 테이프로 더 붙였다.
내 것은 비교적 조각이 쉽게 깨져있어서 비교적 빨리 완성할 수 있었다. 복원을 하는 것은 강한 약품이 쓰여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접합까지만 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진짜 유물을 보존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관이 넓어졌고 쉽게 할 수 없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큐레이터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큐레이터들이 있는지 알았고 내 적성에 따른 큐레이터는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중에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기획한 전시·공연을 볼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괜히 설레어진다 :) ㅎ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